



진주봉원중 3학년 정민채 학생이 지난 4월 30일 부터 5월 2일까지 열린 비대면 제55회 전국 남·여 중별 선수권 양궁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했다.

진주봉원중 정민채 양궁 3관왕 차지!

720ROUND 50m 금메달, 720ROUND 30m 금메달, 개인전 금메달) 축서초등학교 4학년부터 활시위를 당기기 시작한 정민채 학생은 타고난 체력과 높은 집중력, 양궁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선수로 장래가 매우 촉망

되는 학생이다. 문영인 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여서 더 값지며 앞으로 꾸준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미희 기자

사천교육지원청, ‘청림딩동’ 청림박스 전달

청림동아리 다솜회 가정의달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법근)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 청림동아리 ‘다솜회’를 통해 지난 4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청림박스를 전달했다. 전달한 위문품은 청림동아리 교직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시설에서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쳤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한 이번 행사는 바깥 활동이 어려운 현시점에 마음이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낼수 있기를 바라며 평소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설 관계자들은 “매년 바쁘게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찾아와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모두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림동아리 회원들은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다. /생미희 기자

진주교육지원청, 어린이날 맞아 따뜻한 정 나눠 청림동아리 등글레회, 어린이날 선물 및 식료품 지원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주)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청림동아리 등글레회는 진주소재 공동생활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정나눔·기쁨가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동생활가정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어려운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나눔·기쁨가득’ 한 어린이날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했다. 진주교육지원청 청림동아리 등

글레회는 매월 우리 주변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학교밖 돌봄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가정의 달에 소외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을 나눔으로써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청림동아리 등글레회의 지원과 관심에 함께 힘을 모아준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생미희 기자

밀양교육지원청, 2021년 밀양지역 학교운영위원장 청렴교육 실시

밀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희)은 지난 4월 27일 오후 대강당에서 지역 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 밀양지역 협의회)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운영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이해,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 해석,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운영위원장 적용되는 청탁금지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행복한 학생을 만들기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1년 동안의 학교 살림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살피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감시·협력자로서 함께한다. 김정희 교육장은 “지난해 밀양교육발전을 위한 지역협의회의 많은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도 지역협의회의 임원들이 앞장서서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생미희 기자

수원교육지원청, 2021 꿈의학교 참여 학생 모집

마을과 함께 꿈꾸는 미래교육 실현 기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형우)은 지난 3일부터 '2021 수원 꿈의학교'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꿈의학교는 학교 안팎의 학생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 실현을 위해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올해 수원 꿈의학교는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이 만들

어가는 꿈의학교' 88교, 마을의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운영하는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56교, 기관과 청소년단체 등이 운영하는 '다함께 꿈의학교' 18교로 총 162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초·중·고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으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https://village.goe.go.kr/)를 통해 희망하는 꿈의학교에 신청하면 된다. 수원교육지원청 이형우 교육장은 “꿈의학교를 통해 마을과 함께 꿈꾸는 미래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배움의 주제로 성장하는 학생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우 기자

옥천교육지원청, ‘청림 펭귄’ 깜짝 방문

옥천 지역 홍보대사의 방역 및 청림 홍보 퍼포먼스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에 지난날 28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제를 쥔 캐릭터 ‘청림 펭귄’의 깜짝 방문이 있었다. 파란색 청림 조끼를 입은 ‘청림 펭귄’은 옥천 지역의 코로나19 예방

을 위해 옥천교육지원청의 유리문 손잡이, 계단 난간 등을 손수 닦아 방역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청림 펭귄’은 충청북도교육청의 옥천지역 홍보대사 중 한 명으로 추측되며, 방역 및 청림 홍보를 위해 펭귄 옷을 입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발적인 방역 및 청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옥천교육지원청 서영자 행정과장은 “옥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긴장감이 있는데, 펭귄이가 이렇게 깜짝 방문해 귀여운 모습으로 방역 활동과 청림 홍보를 해주니 직원들도 너무 즐거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기국 기자

아산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과 학원 방역 점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희)은 지난 4일, 전국 학원 집중 방역기간(‘21.4.21.~5.11, 3주간) 운영에 따른 학원의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교육지원청 간부가 직접 참여하는 관내 학원 특별 방역 점검을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종사자에 대한 자가진단엽

사용 독려 등으로 학원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학원 방역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소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강화하고 있다. 이문희 교육장은 “방역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안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코로나 19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학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찬 기자

음성행복교육지구, ‘도의원과 함께하는 음성군마을교육협의회’ 가제

협의회에서는 음성행복교육지구의 현황과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사업 설명이 있었고, ‘음성 행복교육지구 활성화 방안’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현안들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음성행복교육지구(교육장 김상열)는 지난날 26일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충청북도 도의회 이상정 의원과 함께 ‘음성군마을교육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음성행복교육지구 참여하는 민간공모단체 운영진 및 마을 교육활동가, 지역민,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였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음성군마을교육협의회는 마을교육활동가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음성행복교육지구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구성됐다. /정기섭 기자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김동영 과장은 “늦은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참석한 음성 마을 교육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리고, 음성행복교육지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 도의회 이상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성 마을 교육활동가,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적어 매우 아쉬웠으나, 오늘을 계기로 함께 논의하고 손을 맞잡아 음성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섭 기자

광주체육고 자전거부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종합우승



광주체육고 자전거부가 지난날 17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전라남도 나주시 사이클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여자고등부 경기에서 금메달 5개·은메달 1개·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7일 광주체육고에 따르면 광주체육고 2학년 천윤영 학생이 개인추발2km 경기와 스크래치 5km 경기에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2학년 김보민 학생도 경륜경기과 제외경기에서 우승해 2관왕의 영광을 얻었다. 광주체육고 이소진 학생은 팀포 레이스5km 경기에서 우승해 금메달 1개를, 스크래치5km 경기에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육고 3학년 이소진, 2학년 김보민·천윤영, 1학년 박예린 학생이 동반 출전한 단체스프린터 경기에서는 준우승해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육고 2학년 김보민 학생이 최우수신인상을, 광주체육고 황규동 감독이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최영준 기자

한편 동반 출전한 광주체육중은 단체추발2km 경기에서 3위, 단체스프린터 경기에서 3위를 차지해 여자중등부 종합 3위의 성적을 거뒀다. 광주체육고 자전거부 김철민 지도자는 “코로나19로 운동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믿고 따라와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앞으로도 제50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까지 더 열심히 지도해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체육중 자전거부 감독이기도 한 광주자전거연맹 최기영 이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스포츠계가 많이 위축된 환경 속에서 광주자전거연맹을 새롭게 구성했고, 관계자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지금의 성과가 지속적으 이어질 수 있도록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발굴을 통해 자전거부가 광주체육중·고등학교의 대표 종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준 기자

충남교육청, 가칭 ‘아산장지울초’ 심사 통과

당정일반산업단지 학생유입, 2023년 9월 개교 예정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1년 ‘경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아산장지울초등학교(이하 아산장지울초) 신설 건이 승인됐다. 가칭 아산장지울초는 2023년 7월 입주하는 당정일반산업단지 3,027세대에서 유입되는 초등학생 배치를 위해 2023년 9월 개교 예정이다. 설립 규모는 14,771㎡ 부지에 연면적 20,929㎡, 55학급(일반 51, 특수 1, 병설유치원 3)으로 1천 435명 학

생을 배치하며, 총사업비는 약 559억원이 소요된다. 김현기 학교지원과장은 “초등학교 신설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아산 당정지역 입주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정 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아산시 당정면 갈산리 일원에 11,883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한성진 기자

온양한울중, ‘안녕하세 ‘효’ 캠페인’ 진행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한울중 HUG센터

온양한울중학교(교장 김문환)는 지난 3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HUG센터에서는 “건강하세 ‘효’ 캠페인” 어버이날 기념일을 맞아 15명의 학생들이 꽃액자를 직접 만들어 초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강하세 ‘효’ 캠페인”은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게 되실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한다. 라온하세:즐거운내일 팀은 비대면으로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라는 문구를 쓰고 예쁜 꽃을 만들었으며, 요리 동아리 학생들은 직접 마들렌 사랑의 쿠키를 만들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이번 행사는 의미가 크며 예뻐고 맛있어 보인다. 손명교 초원회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예쁜 꽃만큼 예쁜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께 잘 전달될 것이며 학생들의 효 실천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성찬 기자

김문환 교장은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깨닫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효 실천을 위한 인성함양을 기르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의미가 남다르며, 학생들의 마음이 담긴 선물은 어르신들이 받으시면서 행복해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경선 사회복지사(아산시부종합사회복지관)는 “가족봉사활동을 통해 사춘기 청소년들과 가족구성간에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인에 대한 청소년기 인식 개선으로 노인 차별과 학대를 해소하고 세대 갈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첫 번째 봉사활동 “건강하세 ‘효’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통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의 창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성찬 기자